

集團壓力이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의 判斷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趙 兢 鎬
全南大學校 心理學科

타인에 대한 好惡次元印象은 社會的 規準에 따라, 和親次元印象은 個人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Asch(1951)의 同調行動 場면에서 검증하였다. 好惡度值과 和親度值가 대체로 같은 단어들과 正·負의 單語集團에서 선정하여 각각 4단어로 이루어진 單語組合를 구성하고 이러한 單語組에 대한 好惡次元印象評定值과 和親次元印象評定值을 각각 10명의 피험자에게서 산출하였다. 이러한 印象評定值을 기초로 그 1 標準偏差의 尺度值에 3명의 僞裝被驗者를 통해 集團壓力을 가한 조건을 설정하고 각 20명의 순수 피험자에게서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을 평정토록 하였다. 그 결과 好惡判斷集團의 인상평정치가 和親判斷集團의 그것보다 集團壓力值에 더 가까웠으며, 好惡判斷集團의 集團壓力에의 同調量이 和親判斷集團에서보다 많았다. 또한 好惡判斷集團의 인상평정치의 集團內 變散度는 和親判斷集團의 그것보다 작았으며, 集團壓力에의 信賴度도 好惡判斷集團이 和親判斷集團에서보다 높았다. 同調行動 場면에서의 集團壓力은 자극재료를 판단하는 社會的 規準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본 실험의 결과는, 타인에 대한 好惡次元印象은 效果源으로서의 社會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和親次元印象은 社會的 規準과는 상관없이 個人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논의되었다.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평가적 인상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筆者의 최근 연구들(趙兢鎬, 1974, 1976, 1979a, 1979b, 1979c, 1980a)에서 밝혀지고 있다. 筆者는 타인에 대한 최종인상판단을 好惡判斷¹⁾으로 할 때와 和親判斷²⁾으로 할 때의 정보통합형태의 차이를 밝히려고 하였다.

이들 실험에서는 正·負異質組合³⁾을 구성하여 대상인물을 제시하였을 때, 구체적인 行動記述文章으로 자극재료를 구성하든지(趙兢鎬, 1974),

性格特性形容詞로 자극재료를 구성하든지(趙兢鎬, 1976) 항상 好惡判斷에서는 負的情報優越現象이 나타났으나, 和親判斷에서는 중립적인 인상평정치를 보이므로써 好惡判斷의 경우에 和親判斷의 경우보다 극단적인 인상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正·負同質組合⁴⁾의 경우에도(趙兢鎬, 1979a) 대체로 好惡判斷의 인상이 和親判斷의 인상보다더 극단적인 인상반응을 보이고 있다.

筆者(趙兢鎬, 1979b)는 앞의 실험들에서 好惡判斷이 和親判斷보다 항상 동일대상인물에 대해 극단적으로 치우친 인상을 보인 것은, 好惡判斷은 인상형성에서의 정보통합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 중 累加模型을 지지하고 있는 실험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從屬測定尺인 “좋다—나쁘다” 척도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和親判斷은 平均模

1) 대상인물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사람인지 하는 “좋다—나쁘다” 척도로 측정되는 인상판단.

2) 대상인물을 주관적으로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 또는 싫어할 것인지 하는 “좋아한다—싫어한다” 척도로 측정되는 인상판단.

3) 正의 情報과 負의 情報를 함께 사용하여 하나의 단어조합을 구성한 경우.

4) 正의 情報끼리 또는 負의 情報끼리 단어조합을 구성한 경우.

형을 지지하는 실험들에서 從屬測定尺으로 사용하고 있는 척도인 “좋아한다-싫어한다”척도를 최종인상반응의 측정적으로 사용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累加模型과 平均模型이 근본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는 주제인 정보조합의 크기 효과를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好惡判斷에서는 정보조합의 크기가 커질수록 인상반응의 평정치가 극단화하였으나, 和親判斷에서는 정보조합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인상반응을 보이므로써 好惡判斷은 累加模型에 따라, 그리고 和親判斷은 平均模型에 따라 인상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두 차원의 인상이 형성될 때 주요단서로 작용하는 대상인물의 特性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또한 筆者의 최근 실험(趙毓鎬, 1980a)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에 의하면 Rosenberg, Nelson과 Vivekananthan(1968)이 評價의 하위차원으로 분할해 낸 知的 評價의 특성들과 社會的 評價의 특성들로 각각 正・負同質組合을 구성하였을 때, 正的同質組合의 경우 好惡判斷에서는 知的 特性의 인물이 社會的 特性의 인물보다 높은 인상평정치를 보인 반면, 和親判斷에서는 社會的 特性의 인물이 知的 特性의 인물보다 높은 인상평정치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負的同質組合에서는 그 반대로 好惡判斷의 경우에 知的 特性의 인물이 社會的 特性의 인물보다 낮은 인상평정치를 보인 반면,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社會的 特性의 인물이 知的 特性의 인물보다 더 낮은 인상평정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인물의 知的 및 社會的 評價特性에 따라 그에 대한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이 달라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課題遂行과 관련된 知的 活動을 표현하는 知的 評價次元의 특성들은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좋고 나쁨의 평가인 好惡次元印象을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하고, 대인관계에서의 情的 行動을 표현하는 社會的 評價次元의 특성들은 타인에 대한 주관적인 좋아하고 싫어함의 평가인 和親次元印象을 판단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일 대상인물에 대한 이러한 두 차원의 인상의

차이는 好惡次元印象은 대상인물에 대해 客觀的인 判斷을 하여 얻어지는 인상이고, 和親次元印象은 그에 대해 主觀的인 判斷을 하여 얻어지는 인상이라는 점이다. 筆者(1979c)는 자극대상인물이 판단자에 대해 갖는 重要도를 조작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客觀的인 好惡判斷의 경우에는 대상인물의 중요도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 인상반응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지만, 主觀的인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대상인물의 중요도에 따라 인상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好惡判斷에서는 대상인물의 중요도에 관계없이 인상평정치가 거의 차이가 없었음에 비하여, 和親判斷에서는 대상인물의 중요도에 비례하여 인상평정치가 正的인 증가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惡好次元印象은 대상인물에 대한 客觀的인 次元의 인상이고 和親次元印象은 그에 대한 主觀的인 次元의 인상임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Eiser와 Stroebe(1972)는 판단차원에 따라 社會事象이나 타인에 대한 判斷規準이 달라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客觀的인 次元의 好惡印象과 主觀的인 次元의 和親印象을 판단할 때 동원되는 判斷規準이 다를 것이라는 점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筆者(1980b)는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이 형성되는 機制의 차이를 논술하면서, 전자의 객관적인 판단이란 타인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社會的 規準에 이루어 적합한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이고 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란 타인에 대한 사적인 行動定向을 個人的 規準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라 상정하였다. 즉, 好惡次元印象은 社會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고, 和親次元印象은 個人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Asch(1951) 이후의 同調行動 실험장면에서 集團壓力은 순수피험자가 자극재료를 판단하는 社會的 規準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상형성장면에서 이러한 集團壓力을 대상인물의 인상을 판단하는 社會的 規準으로 조작하므로써, 好惡次元印象은 社會的 規準에 따라, 그리고 和親次元印象은 個人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假設을 다음과 같은 세개의 豫言으로 검증해 보려 하였다.

豫言 1. 자극대상인물의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을 각각 측정 한 후, 이렇게 얻은 印象評定値에서 상당히 일탈된 評定尺의 어떤 점에 集團壓力을 가한 조건에서 다시 印象判斷을 시키면, 好惡判斷集團은 이러한 集團壓力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지만, 和親判斷集團에서는 이러한 集團壓力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豫言 1은 다음과 같은 小豫言들로 검증될 수 있다.

小豫言 1-1. 集團壓力을 받은 후의 印象評定値는 好惡判斷集團에서는 壓力을 받기 전의 그것과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和親判斷集團에서는 集團壓力을 받기 전과 후의 印象評定値 間に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小豫言 1-2. 集團壓力을 받은 후의 印象評定値와 集團壓力値 간의 차이는 好惡判斷集團의 그것보다는 和親判斷集團의 그것이 훨씬 클 것이다. 즉, 好惡判斷集團에서는 和親判斷集團에서 보다 훨씬 더 集團壓力値에 가까운 印象評定値를 보일 것이다.

豫言 2. 集團壓力을 받은 후의 好惡判斷集團의 集團內 印象評定値의 變散은 集團壓力을 받기 전의 變散보다 훨씬 작을 것이지만, 和親判斷集團에서의 印象評定値의 變散은 集團壓力을 받기 전이나 후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豫言 3. 가하여지는 集團壓力에 대한 信賴度는 和親判斷集團에서보다는 好惡判斷集團에서 훨씬 클 것이다.

方 法

被驗者. 전남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40명이 본 실험의 피험자였다. 이들은 실험조수⁵⁾의 개인적인 설득에 의해 개별적으로 실험참가를 동의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본 실험에 동원된 僞裝被驗者⁶⁾들 중 3명과 짝을 지어 4명 1조 (이중 순수피험자는 1명)로 하여 실험에 참가하였다. 순수피험자 40명 중 20명은 好惡判斷集團에, 나머지 20명은 和親判斷集團에 사용되었다.

實驗材料. 張聖洙(1978)의 자료에서 대체로 好惡度値와 和親度値가 같은 性格特性形容詞를 다음 각 단어집단에서 6~8개씩 선정하였다.⁷⁾

表 1. 單語集團別 尺度値平均* 및 그 範圍

		好 惡 度 値		和 親 度 値	
		平 均	範 圍	平 均	範 圍
正的 單語(P)	知的 特性(I)	1.64	.68~2.04	1.51	.47~1.94
	社會的 特性(S)	1.53	.70~2.04	1.59	.72~1.96
負的 單語(N)	知的 特性(I)	-1.05	-.91~-1.27	-1.12	-.75~-1.35
	社會的 特性(S)	-1.05	-.58~-1.56	-1.02	-.48~-1.66

* -3~+3의 7점 척도에서 얻은 척도치임.

- 5) 실험조수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추부길, 윤가현, 박한기, 안동영, 김선민, 유문옥, 김나경, 박숙영 군들로 이들은 본 실험에서의 순수피험자의 조달을 책임맡았다. 이들에게 감사한다.
- 6) 僞裝被驗者(stooge)는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6명의 남학생들로, 권명섭, 은광석, 박홍선, 김성무, 이강남, 김현 군들이었다. 이들은 실험실시의 과정에서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진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감사를 표한다.
- 7) 각 집단별로 선정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PI: 유능하다. 현명하다. 슬기롭다. 훌륭하다.

- 똑똑하다. 틀림없다. 비범하다. 빈틈없다.
PS: 너그럽다. 온화하다. 명량하다. 순박하다.
구수하다. 묵묵하다. 텅텅하다.
NI: 당돌하다. 미숙하다. 괴팍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NS: 투박하다. 병혹하다. 싸늘하다. 무정하다.
메마르다. 능청맞다.
이들 단어중 PI의 유능하다와 훌륭하다, NI의 미숙하다와 미련하다는 好惡度値와 和親度値에 차이가 있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 PI와 NI에서 두 척도치에 차이가 있는 단어를 넣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張聖洙의 자료에서 知的 評價次元에 속하는 단어가 이외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어집단 별 척도치평균 및 그 범위는 表 1과 같다.

이들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의 크기가 4인 單語組合을 만들었다. 單語組合은 正的 單語끼리 묶은 조합 6개와 負的 單語끼리 묶은 조합 6개 해서 모두 12가지의 단어조합을 구성하였다. 각 단어 조합에는 知的 特性 단어 2개와 社會的 特性 단어 2개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⁸⁾ 이들은 각각의 단어집단(PI, PS, NI, NS)에서 무선적으로 2개씩 6번을 통제된 代置的 標集의 방법으로 뽑고(이때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뽑힌 6조 중 2번 이상 속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뽑힌 6조씩 들에서 PI와 PS를 무선적으로 1:1로 짝지워 4단어의 正的 單語組合 6개를 구성하고, 또 NI와 NS를 무선적으로 1:1로 짝지워 4단어의 負的 單語組合 6개를 구성한 것이었다.

이렇게 작성된 12개의 單語組合을 26cm×36cm 크기의 마분지 위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단어 하나씩 적어 넣어 자극재료로 만들었다. 이때 正的 및 負的 單語組合에 속하는 각 6개 중 3개씩의 단어조합은 ISIS의 순서로 기입했고, 나머지 3개씩의 단어조합은 SISI의 순서로 기입하였다. 이렇게 하여 12개 단어조합으로 이루어진 자극재료를 한벌(A型) 만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극재료와 단어기입 순서를 완전히 뒤바꾼 단어조합을 다시 한벌(B型) 만들었다. 즉, 먼저의 자극재료에서 $I_1S_1I_2S_2$ 의 순서로 기록된 카드는 이번 재료에서는 $S_2I_2S_1I_1$ 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씩의 조합의 크기 4인 단어조합의 카드를 2벌 만들어 자극재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들 이외에 아주 극단적으로 正的인 단어 4개(PE: 好惡度平均=2.52, 和親度平均=2.40), 중립적인 단어 4개(ME: 好惡度平均=

.02, 和親度平均=-.02), 아주 극단적으로 負的인 단어 4개(NE: 好惡度平均=-2.38, 和親度平均=-2.48)를 선정하여 동일한 크기의 카드에 적어 넣어 연습평정을 위한 자료⁹⁾로 사용하였다.

基準印象評定值 測定 및 集團壓力值 決定. 이렇게 하여 작성된 27장의 카드(12개의 단어조합×2벌(A型, B型)+3개의 연습용카드)를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2~3학년 학생 20명에게 제시하고 인상평정치를 제산하였다. 이때 피험자의 반(10명은 好惡次元印象을, 나머지 반(10명)은 和親次元印象을 +20~-20의 41점척도에서 평정하였다.¹⁰⁾ 이 경우 피험자들은 判斷次元별로 10명씩 한 강의실에 앉아서 본 실험자가 연습용카드 3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24장의 카드를 무선적으로 약 10초간 제시할 때마다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判斷次元에 대한 인상평정치를 배부해 준 기록용지에 점수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인상평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集團壓力值를 결정하였다. 集團壓力은 A, B型별로 해당되는 단어조합 12개 중 正的 單語組合과 負的 單語組合에서 ISIS의 순서로 기록된 카드 3장, SISI의 순서로 기록된 카드 3장씩 중에서 한장은 基準印象評定值에(無壓力單語組), 또 한장은 基準印象評定值+1 標準偏差의 점에(上向壓力單語組), 나머지 한장은 基準印象評定值-1 標準偏差의 점에(下向壓力單語組) 대체로 集團壓力을 가하였다. 이때 集團壓力은 대체로 이러한 점수에서 근사한 整數를 평균으로 하여, 僞裝被驗者 중 한 사람은 이 점수의 점에, 또 한 사람은 이에 1을 더한 점에, 나머지 한 사람은 이에 1을 뺀 점에 가하도록 하였다.

刺戟配列. 각 피험자에게 제시된 자극재료는 15개이었다. 이들 중 3개는 연습용카드이고, 나머지 12개가 본실험용카드이었다. 이제 각 집단별로 본실험에서의 자극배열과 集團壓力值를

8) 筆者의 선행연구(趙敬鎬, 1980a)에서 知的 特性은 好惡次元印象의 판단에 주요단서로 작용하고, 社會的 特性은 和親次元印象의 판단에 주요단서를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이들 단어의 특성이 각 판단에 대해 갖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한 單語組合에 동수의(2개씩의) 知的 特性과 社會的 特性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9) 연습평정의 재료로 선정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PE: 신실하다. 진실하다. 근면하다. 정직하다.
ME: 단순하다. 냉정하다. 냉엄하다. 대평하다.
NE: 잔악하다. 야비하다. 악랄하다. 음흉하다.

10) 이 때의 지시문과 평정척은 뒤의 節次항에서 제시된 本指示 제 1부와 같다.

表 2. 好惡判斷集團 刺戟配列, 基準印象評定值 및 集團壓力值

자극 재료	A 型				B 型			
	單語組 特性*	基準印 象評定 值平均	基準印象 評定值 標準偏差	集團壓力值**	單語組 特性	基準印 象評定 值平均	基準印象 評定值 標準偏差	集團壓力值
연 습	1 PE [△]	18.3	2.24	17, 18, 19(18)	PE [△]	A 型 과 同 一 할		
	2 ME [△]	- 1.2	7.00	0, -1, -2(-1)	ME [△]	"		
	3 NE [△]	-19.4	1.50	-18, -19, -20(-19)	NE [△]	"		
본제서	1 PIS [△]	11.6	5.50	11, 12, 13(12)	PSI [△]	14.1	3.94	13, 14, 15(14)
	2 NSI [↑]	-11.8	5.67	-5, -6, -7(-6)	NIS [↑]	-10.4	4.34	-5, -6, -7(-6)
	3 PSI [△]	13.8	3.66	13, 14, 15(14)	PIS [△]	12.9	3.86	12, 13, 14(13)
	4 NSI [↓]	- 5.1	4.81	-9, -10, -11(-10)	NSI [△]	- 8.1	4.76	-7, -8, -9(-8)
	5 PSI [↑]	13.2	4.07	16, 17, 18(17)	PSI [↓]	15.6	3.14	10, 11, 12(11)
	6 PSI [↓]	15.4	4.82	10, 11, 12(11)	PIS [↓]	14.8	4.21	10, 11, 12(11)
	7 NSI [△]	-10.9	5.80	-10, -11, -12(-11)	NSI [△]	-12.2	4.31	-11, -12, -13(-12)
	8 NIS [△]	- 9.4	3.56	-8, -9, -10(-9)	NIS [↓]	- 6.8	4.84	-10, -11, -12(-11)
	9 PIS [↑]	9.0	5.40	13, 14, 15(14)	PSI [↑]	7.8	5.04	11, 12, 13(12)
	10 NIS [↓]	- 6.8	4.09	-10, -11, -12(-11)	NSI [↓]	-11.5	2.94	-13, -14, -15(-14)
	11 PIS [↓]	15.6	4.61	10, 11, 12(11)	PIS [↑]	11.9	3.99	14, 15, 16(15)
	12 NIS [↑]	-14.6	4.92	-9, -10, -11(-10)	NSI [↑]	-15.4	4.45	-8, -9, -10(-9)

* PIS는 正的組合 중 ISIS순서의 單語組, PSI는 正的組合 중 SISI순서의 單語組, NIS는 負的組合 중 ISIS순서의 單語組, NSI는 負的組合 중 SISI순서의 單語組.

** 괄호 안의 수치는 集團壓力值 平均. △ 無壓力單語組. ↑ 上向壓力單語組. ↓ 下向壓力單語組.

表 3. 和親判斷集團 刺戟配列, 基準印象評定值 및 集團壓力值

자극 재료	A 型				B 型			
	單語組 特性*	基準印 象評定 值平均	基準印象 評定值 標準偏差	集團壓力值**	單語組 特 性	基準印 象評定 值平均	基準印象 評定值 標準偏差	集團壓力值
연 습	1 PE [△]	17.6	3.17	17, 18, 19(18)	PE [△]	A 型 과 同 一 할		
	2 ME [△]	- 1.0	9.63	0, -1, -2(-1)	ME [△]	"		
	3 NE [△]	-19.9	.30	-20, -20, -20(-20)	NE [△]	"		
본제서	1 PIS [△]	13.4	4.10	12, 13, 14(13)	PSI [△]	14.4	3.56	13, 14, 15(14)
	2 NSI [↑]	-13.7	3.90	-9, -10, -11(-10)	NIS [△]	-12.7	5.37	-11, -12, -13(-12)
	3 PSI [△]	14.6	4.03	14, 15, 16(15)	PIS [↑]	11.6	5.46	15, 16, 17(16)
	4 NSI [↓]	- 7.7	5.93	-12, -13, -14(-13)	NIS [↑]	-12.8	5.83	-7, -8, -9(-8)
	5 PSI [↓]	15.3	4.41	9, 10, 11(10)	PSI [↓]	16.9	2.95	11, 12, 13(12)
	6 PSI [↑]	15.3	2.76	17, 18, 19(18)	PIS [△]	13.0	5.34	12, 13, 14(13)
	7 NSI [△]	-13.0	5.50	-12, -13, -14(-13)	NSI [↑]	-12.6	5.30	-6, -7, -8(-7)
	8 NIS [△]	-10.2	5.00	-9, -10, -11(-10)	NIS [↓]	- 7.5	7.19	-13, -14, -15(-14)
	9 PIS [↑]	12.1	5.54	16, 17, 18(17)	PSI [↑]	12.7	5.06	16, 17, 18(17)
	10 NIS [↓]	- 7.3	5.24	-11, -12, -13(-12)	NSI [△]	-12.0	4.82	-11, -12, -13(-12)
	11 PIS [↓]	15.0	4.29	9, 10, 11(10)	PIS [↓]	14.1	5.03	8, 9, 10(9)
	12 NIS [↑]	-14.6	6.45	-7, -8, -9(-8)	NSI [↓]	- 9.2	5.74	-14, -15, -16(-15)

* PIS는 正的組合 중 ISIS순서의 單語組, PSI는 正的組合중 SISI순서의 單語組, NIS는 負的組合 중 ISIS순서의 單語組, NSI는 負的組合 중 SISI순서의 單語組.

** 괄호안의 수치는 集團壓力值 平均. △ 無壓力單語組. ↑ 上向壓力單語組. ↓ 下向壓力單語組.

제시하면 表2, 表3과 같다.

실험은 2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A型的 자극재료는 제 1일에는 好惡判斷集團에, 제 2일에는 和親判斷集團에 사용되었고, B型的 자극재료는 제 1일에는 和親判斷集團에, 제 2일에는 好惡判斷集團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好惡·和親判斷集團에 해당하는 각 20명의 피험자 중 10명은 A型的 자극재료를, 또 10명은 B型的 자극재료를 위와 같은 集團壓力 하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節次. 실험은 筆者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실 옆방에 피험자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었다. 대기실에는 미리 실험자(筆者)의 지시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僞裝被驗者 3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험조수가 1명의 순수피험자를 데리고 오면, 4명이 함께 실험실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이때 만일 실험조수가 데리고 온 순수피험자가 僞裝被驗者 중의 한 사람과라도 알고 있는 사이이면 이 사람은 돌려보내고, 僞裝被驗者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만을 피험자로 하였다. 또한 僞裝被驗者들에게는 순수피험자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僞裝被驗者들끼리도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사전에 지시가 되어져 있었다. 이는 피험자들 사이의 상호간의 인지가 集團壓力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Deutsch & Gerard, 1955)을 통제하기 위한 조처였다.

僞裝被驗者는 모두 6명이었는데, 이들 6명을 3명씩으로 나누어 한 조는 好惡判斷集團에, 나머지 한 조는 和親判斷集團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2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제 1일에 好惡判斷集團의 僞裝被驗者가 되었던 組는 제 2일에는 和親判斷集團의 僞裝被驗者로 사용되었고, 제 1일에 和親判斷集團의 僞裝被驗者가 되었던 조는 제 2일에는 好惡判斷集團의 僞裝被驗者가 되었다. 이들 僞裝被驗者들은 어떤 한 조가 실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조는 실험조수들이 데리고 온 순수피험자와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조의 실험이 끝나면 곧 실험조수의 안내로 실험실에 들어와 실험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순수피험자 1명과 僞裝被驗者 3명의 4명을 1

조로 한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자는 이들을 실험탁자 전면에 놓여진 4개의 의자에 각각 앉게 하였다. 실험탁자와 피험자와의 거리는 대략 3m정도였다. 의자의 배열은 僞裝被驗者 3명이 나란히 앉고 순수피험자는 맨 가장자리에 앉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미리 僞裝被驗者들에게 지시하여 僞裝被驗者들은 항상 순수피험자보다 먼저 차례로 실험실에 들어와서 준비된 의자에 차례로 앉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의자에 앉아 분위기가 정돈되면, 실험에 관한 지시를 주고 곧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에 관한 지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제 1부는 判斷次元을 숙지케 하기 위한 지시였고, 제 2부는 순수피험자에게 集團壓力을 가하기 위한 응답요령에 관한 지시였다. 따라서, 제 1부의 지시는 好惡判斷集團을 위한 것과 和親判斷集團을 위한 것이 서로 달랐고, 제 2부의 지시는 두 집단 모두 같았다.

제 1부의 지시문의 서두에는 好惡·和親判斷集團 모두 인상형성 실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지시가 포함되어져 있었으며, 제시되는 카드 한장씩이 각각 하나의 인물을 묘사한 것으로서, 이들 形容詞는 각 인물에게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밝혀진 특성들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지시외에 好惡判斷集團에게는 好惡次元의 印象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지시를 주었고, 和親判斷集團에게는 和親次元의 印象을 판단하게 하기 위한 지시를 주었다. 好惡判斷集團을 위한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제 3자가 어떤 사람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듣고 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 사람인지” 라는 점에서 별로 주의할 기울이지 않고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데 따라 인상을 형성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는지 혹은 싫어할는지”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하는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때야만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요지 외에 객관적인 好惡次元의 印

象을 4번 강조하여 반복하고, 제시되는 인물이 客觀적으로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20~-20의 41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評定에는 +20에 “아주 좋은 사람”, -20에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명명만을 하였고, 나머지는 5점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이 評定은 72cm×26cm의 마분지 위에 그려 넣어 실험자가 놓여 있는 피험자들의 앞면 벽에 부착하였다. 이때 이 백지에는 41점 評定尺 위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다.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好惡判斷의 지시에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또는 나쁜 사람인지” 하는 구절과 “주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 혹은 싫어할 것인지” 하는 구절만을 바꾸어 넣고, 主觀적인 和親次元의 인상을 평정할 것을 4번 반복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되는 인물에 대해 主觀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역시 +20~-20의 41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評定에는 +20에 “아주 좋아한다”, -20에 “아주 싫어한다”라는 명명만을 하였고, 나머지는 5점간격으로 숫자만 기입하였다. 이 評定도 마찬가지로 72cm×26cm의 마분지 위에 그려 넣어 피험자들의 앞면 벽에 부착하였다. 이때 이 백지에는 41점 評定尺 위에 “주관적으로 볼 때 나는 이 사람”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이러한 제 1부의 지시를 준 후 피험자들에게 자기가 판단할 차원을 숙지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다. 순수피험자가 이를 잘 알고 있으면 다음 제 2부의 지시를 주었다. 제 2부의 지시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상을 혼자 머릿속에서만 간직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받은 인상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전자의 경우보다는 후자의 경우에 타인에 대해 더 정확한 인상이 형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인상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되면 그러한 인상에 대해 더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인상형성에 관한 정확한 원리를 추출해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

에 이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A부터 D까지 번호를 붙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본 실험자가 자극카드를 제시한 후 A번 하고 부르던 A번이 자기의 인상을 보고하고, 그 다음 B, C, D의 순서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시 후에 받은 순서대로 A, B, C, D의 번호를 붙여 주었다. 이때 물론 僞裝被驗者들은 A, B, C의 번호를 갖고, 순수피험자는 D번의 번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지시를 준 후에 피험자들이 판단할 印象次元을 나시 한번 확인한 후 실험에 들어갔다. 실험은 자극카드를 피험자들의 전면 벽에 10초간 제시한 후 카드를 제거하고, A부터 D까지 차례로 자기가 받은 인상을 실험자의 호명에 따라 대답하면 실험자가 이를 기록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카드의 평정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카드를 제시하였다. 물론 이때 僞裝被驗者들은 실험자와 미리 약속한 바 대로 인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¹¹⁾

모든 피험자들은 본실험에 사용될 12개의 카드를 제시받기 전에 3개의 연습용카드를 받고 연습평정을 하였다. 이 연습평정의 목적은 순수피험자에게 자기가 평정할 판단차원 및 응답방법을 익숙하게 하고, 評定尺의 基準點(anchor point)을 형성시키며 동시에 순수피험자에게 실험목적이 노출되지 않도록(자기 이외의 세 사람이 실험자와 미리 共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¹²⁾ 이러한 연습평정이 끝나면 곧 실험으로 들어갔다.

12개의 본제시 인물에 대한 평정이 끝나면 피험자들에게 백지를 한장씩 나누어 주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3사람이 평균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상을 평정하는 데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되는가?” 하는 물음을 주고, 이에 대해 0~100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11) 이러한 集團壓力値는 表 2 및 表 3에 제시되어 있다.

12) 이 3개의 연습용카드와 그 후의 본제시 1번카드는 無壓力單語組로서 僞裝被驗者들은 미리 측정된 基準印象評定値에 근사한 評定値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無壓力單語組는 3개가 더 있었으며, 본제시 카드 중간에 들어져 있었다. (表 2와 表 3 참조)

이렇게 해서 실험의 전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대략 20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實驗設計. 본실험은 2(好惡·和親判斷次元) × 2(A型·B型刺戟材料) × 2(正·負의 單語組集團) × 2(SI·IS의 單語配列順序) × 2(上向·下向의 集團壓力方向)에서 被驗者가 單語組集團, 單語配列順序 및 集團壓力方向에 반복된 要因設計로 進行되었다. 그러나, 被驗者 間變因인 A型·B型的 刺戟材料 要因과 被驗者 內變因인 SI·IS의 單語配列順序는 실험재료 구성의 순서효과를 통제키 위해 삽입된 要因들로, 실험 결과에서 이들의 主效果 및 相互作用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본실험은 기본적으로 判斷次元 × 正·負單語組 × 集團壓力方向에서 피험자가 正·負의 單語組와 集團壓力方向에서 반복된 3要因設計이었

다고 볼 수 있다.

結 果

본실험의 주요 종속변인은 순수피험자가 集團壓力를 받고 각 單語組에 대해 반응한 印象評定值이었다. 우선 好惡判斷集團과 和親判斷集團이 각종 자극단어조합에 대하여 반응한 印象評定值의 平均과 이의 基準印象評定值 및 集團壓力值과의 차이가 表4와 表5에 제시되어 있다.

表4에서 보면, 好惡判斷集團에서의 基準印象評定值(A)와 從屬印象評定值(D) 사이의 차이(t_{A-D})는 集團壓力를 받았던 16단어조 중 11개 단어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表5에서 보면, 和親判斷集團의 그것(t_{A-D})

表 4. 好惡判斷集團의 各單語組에 대한 基準印象評定值, 集團壓力值, 從屬印象評定值 및 그들간의 差異

正·負單語組 單語配列順序 壓力方向		P				N			
		IS		SI		IS		SI	
		上向	下向	上向	下向	上向	下向	上向	下向
刺戟材料 A型 (n=10)	基準印象評定值 $\bar{X}(A)$	9.0	15.6	13.2	15.4	-14.6	-6.8	-11.8	-5.1
	基準印象評定值 $SD(B)$	5.40	4.61	4.07	4.82	4.92	4.09	5.67	4.81
	集團壓力值 $\bar{X}(C)$	14	11	17	11	-10	-11	-6	-10
	從屬印象評定值 $\bar{X}(D)$	13.3	14.3	15.6	15.0	-9.0	-9.7	-6.3	-9.0
	從屬印象評定值 $SD(E)$	2.05	1.49	1.2	2.14	2.73	2.28	3.80	3.16
	$\sum d /n^{\Delta}$	1.7(7) [△]	3.3(2)	1.6(5)	4.2(1)	3.0(2)	2.1(6)	2.7(5)	2.8(2)
	t_{A-D} (df=18)	-2.16*	.80	-1.74*	.18	-2.96**	1.86*	-2.42*	2.14*
	t_{C-D} (df=9)	1.08	-6.64**	3.51**	-5.59**	1.06	-1.80	.23	-.95
$F(=B^2/E^2, df=9/9)$	7.46**	9.57**	11.50**	5.07*	3.25*	3.22*	2.23	2.32	
B型 (n=10)	基準印象評定值 $\bar{X}(A)$	11.9	14.8	7.8	15.6	-10.4	-6.8	-15.4	-11.5
	基準印象評定值 $SD(B)$	3.99	4.21	5.04	3.14	4.31	4.84	4.45	2.94
	集團壓力值 $\bar{X}(C)$	15	11	12	11	-6	-11	-9	-14
	從屬印象評定值 $\bar{X}(D)$	14.5	13.8	8.5	11.2	-7.4	-9.2	-9.9	-12.4
	從屬印象評定值 $SD(E)$	1.75	3.57	2.8	1.75	2.39	2.23	2.62	1.96
	$\sum d /n$	1.3(6)	4.0(1)	3.9(1)	1.4(8)	2.6(4)	2.4(4)	2.3(4)	2.2(4)
	t_{A-D} (df=18)	-1.79**	.54	-.36	3.66**	-1.81*	1.78*	-2.61**	.76
	t_{C-D} (df=9)	.86	-2.35*	3.75**	.34	1.74	-2.42*	1.03	-2.44*
$F(=B^2/E^2, df=9/9)$	5.20*	1.39	3.24*	3.22*	3.30*	4.71*	2.88	2.25	

▲ $|d|$ = |集團壓力值平均 - 各個人別 從屬印象反應| 으로서 각 피험자가 集團壓力에서 離脫한 정도를 나타냄. 즉 이 절수가 작을수록 (0에 가까울수록) 集團壓力에 많이 굴복한 것임.

△ 괄호안의 숫자는 $|d| \leq 1$ 의 사람수로 집단압력에 굴복한 사람수임.

* 5%有意水準 (t 일 경우 一方檢證).

** 1%有意水準 (t 일 경우 一方檢證).

表 5. 和親判斷集團의 各單語組에 대한 基準印象評定值, 集團壓力值, 從屬印象評定值 및 그들간의 差異

刺激材料	正・負單語組 單語配列順序 壓力方向	P				N			
		IS		SI		IS		SI	
		上向	下向	上向	下向	上向	下向	上向	下向
A型 (n=10)	基準印象評定值 $\bar{X}(A)$	12.1	15.0	15.3	15.3	-14.6	-7.3	-13.7	-7.7
	基準印象評定值 $SD(B)$	5.54	4.29	2.76	4.41	6.45	5.24	3.9	5.93
	集團壓力值 $\bar{X}(C)$	17	10	18	10	-8	-12	-10	-13
	從屬印象評定值 $\bar{X}(D)$	14.5	15.1	15.5	13.8	-14.1	-5.2	-5.0	-10.6
	從屬印象評定值 $SD(E)$	4.03	2.26	4.09	2.89	3.94	8.41	6.91	6.37
	$\Sigma d /n^{\Delta}$	2.9(3) [△]	5.1(1)	3.5(1)	4.2(1)	6.7(0)	8.8(1)	7.0(1)	5.8(1)
	t_{A-D} (df=18)	-1.05	-.06	-.22	.85	-.23	-.64	-3.29**	1.00
	t_{C-D} (df=9)	1.86*	-6.77**	1.83*	-3.94**	4.64**	-2.42*	-2.17*	-1.13
	$F(=B^2/E^2, df=9/9)$	1.89	3.60*	2.20	2.33	2.68	2.58	3.14	1.15
B型	基準印象評定值 $\bar{X}(A)$	11.6	14.1	12.7	16.9	-12.8	-7.5	-12.6	-9.2
	基準印象評定值 $SD(B)$	5.46	5.03	5.06	2.95	5.83	7.19	5.30	5.74
	集團壓力值 $\bar{X}(C)$	16	9	17	12	-8	-14	-7	-15
	從屬印象評定值 $\bar{X}(D)$	14.6	12.9	8.7	10.8	-8.4	-6.8	-10.8	-8.7
	從屬印象評定值 $SD(E)$	3.95	3.62	6.80	4.09	4.54	5.74	4.98	5.9
	$\Sigma d /n$	3.0(5)	5.1(0)	3.3(2)	3.4(1)	3.8(1)	7.6(2)	5.0(0)	7.3(1)
	t_{A-D} (df=18)	-.89	.58	1.42	3.03**	-1.79*	-.23	-1.02	-.18
	t_{C-D} (df=9)	1.06	-3.23**	3.66**	.88	.26	-3.76**	2.29*	-3.20**
	$F(=B^2/E^2, df=9/9)$	1.91	1.93	1.81	1.92	1.65	1.57	1.13	1.06

△ $|d| = |\text{集團壓力值平均} - \text{各個人別 從屬印象反應}|$ 으로서 각 피험자가 集團壓力에서 離脫한 정도를 나타냄. 즉, 이 점수가 작을수록(0에 가까울수록) 集團壓力에 많이 굴복한 것임.

△ 괄호안의 숫자는 $|d| \leq 1$ 의 사람수로 집단압력에 굴복한 사람수임.

* 5% 有意水準(t 일 경우 一方檢證).

** 1% 有意水準(t 일 경우 一方檢證).

은 총 16개 단어조 중 3개의 단어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好惡判斷集團에서는 16단어조 중 11개 단어조의 印象評定值가 集團壓力을 받아 基準印象評定值에서 集團壓力의 방향으로 이탈한 것을 나타내고, 和親判斷集團에서는 3개 단어조만이 集團壓力의 방향으로 이탈한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따라서, 好惡判斷集團에서는 集團壓力을 받기 전과 후의 印象評定值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지만, 和親判斷集團에서는 集團壓力을 받기 전과 후의 印象評定值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小豫言 1-1은 대체로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好惡判斷과 和親判斷集團에서의 從屬印象評定值(D)와 集團壓力值(C)와의 차이(t_{C-D})를 보면, 好惡判斷集團에서는 16단어조 중 7개

단어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和親判斷集團에서는 12개 단어조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好惡判斷集團에서는 和親判斷集團에서보다 훨씬 더 集團壓力值에 가까운 印象評定值를 보일 것이라는 小豫言 1-2를 대체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본실험에서 集團壓力이 대상인물에 대한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료는 好惡・和親判斷集團에서의 각 개인의 각 단어조에 대한 從屬印象評定值와 그에 가해진 集團壓力值와의 차이이다. 이러한 차이는 $|d| = |\text{각 단어조에 대한 평균壓力值} - \text{각 개인별 그 단어조에 대한 從屬印象反應}|$ 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각 피험자가 集團壓力에서 이탈한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

서 이러한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d|)가 작을수록(즉, 0에 가까울수록) 集團壓力에 많이 굴복한 것이 되며, 이것이 클수록 集團壓力에서 크게 이탈하여 集團壓力을 받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러한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の 각 단어조에 대한 集團內 平均值($\sum |d|/n$)가 表4와 表5에 제시되어 있다. 表4와 表5에서 보면, 이러한 離脫度は 好惡判斷集團에서의 그것(總平均=2.59)보다는 和親判斷集團의 그것(總平均=5.47)이 훨씬 커서 和親判斷集團이 好惡判斷集團보다 集團壓力에서 더 많이 이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を 變量分析으로 검증하였다. 그런데 본 실험의 設計 5要因 중 피험자間 變因인 A型·B型的 刺戟材料 要因과 피험자內 變因인 SI·IS의 單語配列順序 要因은 실험재료 구성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삽입된 要因들이었다. 이제 본실험에서 얻어진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 점수를 기초로 이 두 要因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好惡判斷集團에서 A型·B型 刺戟材料 사이에서나($F=.26, df=1/38, p>.05$), SI·IS 單語配列順序에서나($F=.11, df=1/38, p>.05$) 이 둘의 相互作用($F=.6, df=1/38, p>.05$)이 모두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또한 和親判斷에서도 刺戟材料나($F=.00, df=1/38, p>.05$) 配列順序($F=.21, df=1/38, p>.05$) 및 이 둘의 相互作用($F=2.17, df=1/38, p>.05$)이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실험에서의 A型·B型 및 SI·IS配列로 구분된 단어조합들은 모두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실험은 기본적으로 判斷次元(2)× 正·負單語組(2)× 集團壓力方向(2)에서 피험자가 뒤의 두 要

인에 반복된 3要因設計로 분석될 수 있다. 이제 好惡·和親判斷集團 별로 A型 재료를 판단했던 피험자(10명)와 B型 재료를 판단했던 피험자(10명)의 결과를 묶어서 각 집단 20명의 피험자에게서 正·負單語組(2)× 上·下壓力方向(2)의 4집단 각각에 해당하는 IS單語組와 SI單語組를 합한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 점수(즉, 여기서 $|d|=|d_{IS}|+|d_{SI}|$ 가 된다)를 기초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離脫度の 각 집단 平均 및 그 變量分析결과는 각각 表6, 表7과 같다.

表7에서 보면, 好惡判斷集團과 和親判斷集團의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검출되었다($F_A=40.67, df=1/38, p<.01$). 이는 和親判斷集團의 離脫度(10.94)가 好惡判斷集團의 그것(5.19)보다 큼을 의미하는 것으로, 集團壓力을 받은 후의 印象評定値와 集團壓力値 간의 차이는 好惡判斷集團에서보다는 和親判斷集團에서 훨씬 큰 것이라는 본실험의 小豫言 1-2를 직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表7에서 보면, 正的 單語組의 離脫度(7.11)보다는 負的 單語組의 離脫度(9.01)가 큰 것으로 검출되었으며($F_C=5.60, df=1/38, p<.05$), 上向壓力을 받을 때(7.41) 보다는 下向壓力을 받을 때(8.71) 集團壓力에서 더 많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A=5.65, df=1/38, p<.05$). 그리고, 好惡判斷에서는 正的 單語組의 離脫度(5.35)와 負的 單語組의 離脫度(5.02)가 별 차이가 없지만, 和親判斷에서는 正的 單語組의 離脫度(8.88)보다는 負的 單語組의 離脫度(13.0)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F_{AB}=7.68, df=1/38, p<.01$).

한편, 앞의 表4와 表5에서 보면, 각 단어조

表 6. 각집단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 平均 및 標準偏差

判斷次元	正·負單語組 集團壓力方向	正的 單語組		負的 單語組		全 體
		上向壓力	下向壓力	上向壓力	下向壓力	
好惡判斷(n=20)		4.25 [▲] (2.23) [▲]	6.45(2.22)	5.30(3.35)	4.75(2.57)	5.19(2.76)
和親判斷(n=20)		8.85 (7.49)	8.90(3.51)	11.25(5.43)	14.75(8.53)	10.94(6.96)
全 體		6.55 (5.93)	7.68(3.18)	8.28(5.40)	9.75(8.04)	

▲ 평균차입($\sum |d|/n$, 단 여기서는 $|d|=|d_{SI}|+|d_{IS}|$ 임).

△ 표준편차입.

表 7.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の 全集團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和	自 由 度	平均自乘	F
被驗者間	2558.38	39		
好惡・和親判斷次元(A)	1322.50	1	1322.50	40.67**
集團內被驗者(誤差a)	1235.88	38	32.52	
被驗者內	3245.01	120		
正・負單語組(B)	144.40	1	144.40	5.60*
AB	198.03	1	198.03	7.68**
B×集團內被驗者(誤差 b)	980.58	38	25.80	
集團壓力方向(C)	67.60	1	67.60	5.65*
AC	9.02	1	9.02	—
C×集團內被驗者(誤差 c)	454.38	38	11.96	
BC	1.22	1	1.22	—
ABC	96.10	1	96.10	2.82
BC×集團內被驗者(誤差 bc)	1293.68	38	31.04	

* 5% 有意水準.

** 1% 有意水準.

합에서의 集團壓力에 완전히 同調한 사람수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d| \leq 1$ 인 사람을 集團壓力에 同調한 사람으로 계산하였는데, 본래 集團壓力은 壓力平均値와 壓力平均値 ± 1 의 점수에 가했던 때문이었다. 이제 이러한 기준에서 피험자별로 각 요인집단에서의 $|d|=1$ 인 문항수를 피험자별 同調量으로 보고, 이의 분포 및 그 變量分析결과를 제시하던 다음 表8, 表9와 같다.

表 8에서 보면, 好惡判斷集團의 피험자들은 총 8단어조 중 평균 3.10 단어조에 同調하여 38.75%의 同調量을 보이고 있는 반면, 和親判斷集團의 피험자들은 평균 1.05 단어조에 同調하여 13.12%의 同調量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두 집단의 차이는 表9에서 보면 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이다($F_A=29.15$, $df=1/38$, $p<.01$). 따

라서, 이러한 결과도 본실험의 豫言 1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表9에서는 또한 正・負單語組와 集團壓力方向의 相互作用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출되었다($F_{bc}=5.40$, $df=1/38$, $p<.05$). 이는 正的 單語組는 下向壓力을 받을 때보다는 上向壓力을 받을 때 [上向壓力同調量(37.5%)—下向壓力同調量(19.0%)=18.5%], 그리고 負的 單語組는 上向壓力을 받을 때보다는 下向壓力을 받을 때 [下向壓力同調量(26.5%)—上向壓力同調量(21.5%)=5.0%] 더 同調量이 큼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실험에서의 豫言 2는 集團壓力을 받은 후의 集團內 印象評定値의 變散은 好惡判斷集團에서는 集團壓力을 받기 전의 變數보다 훨씬 작을 것이지만, 和親判斷集團에서는 이 둘 사이에 아

表 8. 各 집단 集團壓力에의 동조량[▲] 및 평균

	正的單語組		負的單語組		全 體
	上向壓力	下向壓力	上向壓力	下向壓力	
好惡判斷(n=20)	19(.95) ^a	12(.60) ^a	15(.75) ^a	16(.80) ^a	62(3.10) ^b
和親判斷(n=20)	11(.55) ^a	3(.15) ^a	2(.10) ^a	5(.25) ^a	21(1.05) ^b
全 體	30(.75) ^a	15(.38) ^a	17(.43) ^a	21(.53) ^a	

▲ 被驗者별로 각 요인집단에서의 $|d| \leq 1$ 인 단어조수를 합한 것임.

^a 각 요인집단에 속하는 SI와 IS 두 단어조에 대한 개인별 동조량 평균임(따라서, 각 요인집단 최대동조량은 2임).

^b 각 개인별 전체 집단압력 단어조수(8개)에 대한 동조량의 집단내 평균임(따라서, 최대동조량은 8임).

表 9. 集團壓力에의 同調量의 全集團 變量分析 結果

變 散 源	自 乘 和	自 由 度	平均自乘	F
被驗者間	24.19	39		
好惡・和親判斷次元(A)	10.50	1	10.50	29.15**
集團內被驗者(誤差 a)	13.69	38	.36	
被驗者內	37.75	120		
正・負單語組(B)	.30	1	.30	1.32
AB	.42	1	.42	1.83
B×集團內被驗者(誤差 b)	8.64	38	.23	
集團壓力方向(C)	.75	1	.75	3.00
AC	.02	1	.02	—
C×集團內被驗者(誤差 c)	9.48	38	.25	
BC	2.27	1	2.27	5.40*
ABC	.04	1	.04	—
BC×集團內被驗者(誤差 bc)	15.94	38	.42	

* 5% 有意水準.

** 1% 有意水準.

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豫言은 基準印象評定值를 산출한 집단(集團壓力을 받지 않은 印象判斷集團)의 각 단어조에 대한 印象評定值의 變量과 集團壓力을 받은 후의 印象評定에 있어서의 變量 간의 차이로 검증될 수 있다. 각 단어조에 대한 이러한 두 變量간의 차이는 表4와 表5에 $F(=B^2/E^2$ 또는 $E^2/B^2)$ 로 제시되어 있다.

表4에서 보면, 好惡判斷의 경우에는 16개 전체 단어조합에서 基準印象評定值의 標準偏差(B) 보다는 從屬印象評定值의 標準偏差(E)가 작으며, 이 둘의 變量(B^2 과 E^2) 간의 차이는 16개 단어 조합 중 11개 조합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表 5에서 보면,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두 變量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단어조는 16개 중 1개 밖에 없다. 따라서, 豫言 2는 지지되었다.

본 실험에서 각 단어조에 대한 印象評定值 이외에 또하나 중요한 從屬反應은 순수피험자들이 본 僞裝被驗者들의 인상판단의 正確度에 대한 평정이었다. 이는 순수피험자들이 僞裝被驗者들의 印象評定 즉 集團壓力에 대한 信賴度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好惡와 和親判斷集團의 僞裝被驗者의 평정에 대한 이러한 순수피험자들의 信賴度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表

表 10. 集團別 僞裝被驗者評定에 대한 信賴度[▲]

	好惡判斷集團 (n=20)	和親判斷集團 (n=20)
平 均	75.25	62.35
標準偏差	9.01	23.67

▲ 0~100의 척도에서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관수록 높은 信賴度를 나타냄.

10과 같다.

表10에서 보면, 好惡判斷集團 피험자의 集團壓力에의 信賴度(75.25)는 和親判斷集團의 그것(62.35)보다 훨씬 크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검증되었다($t=2.22, df=38, p<.05, 一方檢證$). 이는 集團壓力에 대한 信賴度는 和親判斷集團에서 보다는 好惡判斷集團에서 훨씬 큰 것이라는 본실험의 豫言 3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信賴度의 집단 내 개인차는 好惡判斷集團(9.01) 보다는 和親判斷集團(23.67)에서 훨씬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F=6.90, df=19/19, p<.01$).

論 議

본실험의 결과는 好惡判斷集團에서는 和親判斷集團에서보다 集團壓力에 同調한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好惡判斷集團의 인상반응이

和親判斷集團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集團壓力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集團壓力은 피험자에게 集團規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Asch, 1951; Deutsch & Gerard, 1955; 鄭良殷, 1969). 이러한 集團壓力은 피험자들이 주어진 자극재료를 판단하는 判斷規準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判斷規準은 集團의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자극재료를 판단하는 社會的規準이라고 볼 수 있다.

본실험에서의 기본가설은 타인에 대한 好惡次元印象은 社會的規準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和親次元印象은 個人的規準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설에서 보면, 集團壓力이 가하여지는 조건에서의 好惡判斷은 이러한 集團壓力이 자극재료를 판단하는 社會的規準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集團壓力에 따르는 인상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個人的規準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和親次元印象反應은 이러한 集團壓力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게 된다. 본실험의 결과에서는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으며, 따라서 본 실험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어떤 일 또는 事象에 대한 판단의 명백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는 社會比較理論(Festinger, 1954)을 검증하는 실험들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判斷規準으로 삼아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 결과의 판단자간 變散이 줄어들어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Wrightsmann, 1960)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社會的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好惡次元印象의 경우에는 社會的規準으로 작용하는 集團壓力을 받기 전보다 集團壓力을 받은 후에 集團內變散의 정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個人的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和親次元印象의 경우에는 集團壓力을 받기 전과 후의 인상반응의 個人差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본실험에서는 이러한 추론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好惡次元印象은 社會的規準에 의해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한 피험자들의 인상판단 과정에서 가하여지는 集團壓力이 이러한 판단의

社會的規準으로 작용한다면, 好惡判斷集團의 피험자들은 個人的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을 하게 되는 和親判斷集團의 피험자보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集團壓力值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추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集團壓力에의 同調量은 집단구성원의 전문성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결과들(Crano, 1970; Ettinger, Marino, Endler, Geller & Natziuk, 1971)이나 집단성원에의 信賴도가 커질수록 同調量이 증가한다는 사실(Aronson, 1980)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본실험에서는 이러한 추론도 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즉, 集團壓力에의 신뢰도는 個人的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는 和親判斷集團에서보다는 社會的規準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好惡判斷集團에서 훨씬 컸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본실험에서는 이러한 신뢰도의 集團內變散도 好惡判斷集團 보다는 和親判斷集團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和親判斷集團에서는 이러한 集團壓力에 대한 피험자들의 信賴도가 상당히 서로 다르지만, 好惡判斷集團에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好惡判斷集團의 피험자들이 集團壓力을 자기들의 인상판단의 믿음만한 기준으로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Sherif(1935)의 視自動運動에 관한 실험이래 同調現象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피험자들이 同調現象을 보이는 까닭을 두가지의 서로 다른 원인에서 찾고 있다(Freedman, Sears & Carlsmith, 1978; Aronson, 1980). 그 하나는 타인을 믿음만한 판단의 情報源으로 보아 이러한 정보에 비추어 올바른 판단을 하려는 동기에서 集團壓力에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기판단에 대한 확신이 적을수록 集團壓力에의 同調量이 커진다는 결과들(Crutchfield, 1955; Kelley & Lamb, 1957; Coleman, Blake & Mouton, 1958; Krech, Crutchfield & Ballachy, 1962)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극종류의 모호도나 애매도와 集團壓力에의 同調量과는 상관없이 일정하여 아주 명백한 기준이 있는 자극상황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로 일정한 同調量을 보이게 된다는 결과들 (Mouton, Blake & Olmstead, 1956; Luchins & Luchins, 1963; Endler, 1966; 鄭良殷, 1969)은 설명할 수 없다.

同調行動의 원인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주류는 集團의 規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集團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또는 비웃음을 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 集團壓力에 同調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앞서의 자극재료의 곤란도와 동조량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들 뿐만 아니라, 集團壓力에 굴복할수록 집단성원들의 정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 (Schachter, 1951)이나 集團의 凝集力이 크거나 집단성원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예기될 때 同調量이 늘어난다는 결과들(Dittes & Kelley, 1956; Thibaut & Strickland, 1956; Kiesler, Zanna & De Salvo, 1966)에서 지지를 받고있다.

Jones와 Gerard(1967)는 사회관계에서의 어떤 사람의 타인에의 의존성은 이러한 두가지에 그 기원이 있다고 밝히고, 전자의 경우를 情報依存性(informational dependence), 후자의 경우를 效果依存性(effect dependence)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면, 同調現象은 압력을 가하는 집단을 情報源으로 인지하거나 또는 效果源으로 인지하는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¹³⁾ 그렇다면, 본 실험의 好惡判斷集團에서 나타난 集團壓力에의 同調現象은 壓力을 가하는 집단을 情報源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效果源으로 인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가?

Deutsch와 Gerard(1955)는 사회관계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을 情報的 影響(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과 規範的 影響(normative social influence)으로 나누고, 이러한 사회관계의 응집력이 클 때 즉, 단순한 사람들의 集合이 아니라

하나의 集團을 형성하였을 때는 후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規範的 影響은 집단을 效果源으로 인지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고, 情報的 影響은 집단을 情報源으로 인지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들은 4명을 1조로 한 동조실험장면을 구성하였는데 이때 피험자들끼리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한 조건(對面條件)과 그들이 서로 볼 수 없게 한 조건(匿名條件) 중 전자의 경우에 집단압력에의 동조량이 더 많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對面條件에서는 피험자들이 서로 하나의 集團을 형성한 것으로 인지하고, 匿名條件에서는 그들이 단순히 集合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아, 전자의 경우에 집단이 개인에게 주는 規範的 影響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同調量이 더 큰 것이라 해석했다.

이러한 Deutsch와 Gerard의 실험과 본 실험을 비교해 보면, 본 실험은 그들의 대면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조건에서는 집단의 規範的 影響이 작용하게 된다. Jones와 Gerard(1967)는 집단의 이러한 規範的 影響은 集團壓力이 效果源으로 작용하여 이에 따른 反響評價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好惡判斷의 경우 集團壓力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好惡判斷의 경우에는 집단의 規範的 影響을 많이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和親判斷集團에서는 集團壓力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따라서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집단의 規範的 影響을 거의 받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好惡判斷은 社會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피험자들은 이러한 社會的 規準을 效果源으로 인지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므로써 피험자들은 이러한 社會的 規準이라는 規範에 동조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社會的 規準에 따른 판단은 피험자가 變散이 적어지고 또 이러한 社會的 規準은 신뢰할만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和親判斷은 個人的 規準에 따라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社會的

13) Jones와 Gerard(1967)는 집단을 情報源으로 보고 판단을 할 때에는 集團壓力을 比較評價(comparative appraisal)의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이에 대한 同調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집단을 效果源으로 보고 판단을 할 때는 集團壓力에 의한 反響評價(reflected appraisal)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同調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規準이 效果源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이러한 集團壓力에 동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그러므로써 個人的 規準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피험자간 인상판단의 變散이 커지고 또한 集團壓力에 대한 신뢰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타인에 대한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가능해지게 되는 듯하다. 즉, 전자는 타인을 效果源으로서의 社會的 規準에 따라 판단하여 얻어지는 인상이고, 후자는 타인을 社會的 規準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私的 規準에 따라 판단하여 얻어지는 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실험에서는 전반적으로 負的 單語組보다는 正的 單語組에서 集團壓力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6, 表7 참조). 이는 正的 人物의 인상판단을 할 때에는 負的 人物의 인상판단을 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더 기울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인지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正向偏見(positivity bias)의 현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타인을 기술하는데 正的 單語가 負的 單語보다 훨씬 많고(Zajonc, 1968), 타인과의 負的 關係보다는 正的 關係를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De Soto & Kueche, 1959; Cantral, 1965; Bradburn & Caplovitz, 196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을 負的으로 보기보다는 正的으로 보는데 더 익숙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社會的 規準에 더 친숙해 있을 것이므로 正的 人物의 판단에 있어서 集團壓力을 더 많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好惡判斷의 경우보다는 和親判斷의 경우에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好惡判斷에서는 正的 單語組의 集團壓力에서의 離脫度(5.35)와 負的 單語組의 離脫度(5.02)에 별 차이가 없지만, 和親判斷에서는 正的 單語組의 離脫度(8.88)보다는 負的 單語組의 離脫度(13.0)가 훨씬 큰 것이다. 다시 말하면, 好惡判斷의 경우에는 正的 單語組에서나 負的 單

語組에서나 별 차이없이 集團壓力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和親判斷의 경우에는 負的 單語組에서보다는 正的 單語組에서 集團壓力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筆者의 최근 연구(趙兢鎬, 1980a)에서 正的 人物의 판단에 있어서 보다는 負的 人物의 판단에 있어서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의 차이가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고 밝혀진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즉, 正的 人物에서 보다는 負的 人物에서 好惡·和親判斷의 차이가 더욱 부각되어지므로, 負的 人物의 和親判斷은 正的 人物의 그것보다 個人的 規準에 의한 판단의 양상이 더욱 두드러져 集團壓力을 덜 받게 되었을 것이라 추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타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好惡次元印象은 社會的 規準을 준거로 삼아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和親次元印象은 個人的 規準을 준거로 삼아 인상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張聖洙. 印象形成에서의 情報統合에 관한 一考察.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8.
- 鄭良殷. 課題困難도와 集團壓力. 韓國心理學會誌, 1969, 1, 42-53.
- 趙兢鎬. 他人의 印象에 대한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의 差異. 韓國心理學會誌 學術發表大會抄錄, 1974.
- 趙兢鎬. 刺戟의 極端性과 自我關與水準이 印象形成에 미치는 影響. 韓國心理學會誌, 1976, 2, 51-58.
- 趙兢鎬. 刺戟의 極端性이 他人의 印象에 대한 好惡와 和親判斷에 미치는 影響. 龍鳳論叢—人文科學研究—(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9, 9, 269-282. (a)
- 趙兢鎬. 같은 內容의 印象情報의 數가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韓國心理學會誌, 1979, 2, 132-148. (b)
- 趙兢鎬. 對象人物의 重要도에 따른 好惡判斷과 和親判斷의 差異. 學生生活研究(全南大學校

- 學生生活研究所), 1979, 11, 89-102. (c)
- 趙兢鎬. 知的 評價情報와 社會的 評價情報가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에 미치는 影響의 差異. 韓國心理學會 學術發表大會抄錄, 1980. (a)
- 趙兢鎬. 好惡次元印象과 和親次元印象의 判斷에 介재하는 機制의 差異 模型一試論. 龍鳳論叢—人文科學研究(全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0, 10, 235-248. (b)
- Aronson, E. *The Social Animal*(3rd ed.).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1980.
- Asch, S. E. Effects of group pressure upon the modification and distortion of judgments. In H. Guetzkow(Ed.), *Groups, leadership and men*. Pittsburgh, Pa.: Carnegie Press, 1951.
- Asch, S. E.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n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 1956, 70, No. 9 (Whole No. 416).
- Bradburn, N. M., & Caplovitz, D. *Reports on happiness*. Chicago: Aldine, 1965.
- Cantril, H.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New Brunswick,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1965.
- Coleman, J. F., Blake, R. R., & Mouton, J. S. Task difficulty and conformity pressur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8, 57, 120-122.
- Crano, W. D. Effects of sex, response order and expertise in conformity: A dispositional approach. *Sociometry*, 1970, 33, 239-252.
- Crutchfield, R. S. Conformity and Character. *American Psychologist*, 1955, 10, 191-198.
- De Soto, C. B., & Kuethel, J. L. Subjective probabilit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9, 59, 290-294.
- Deutsch, M., & Gerard, H. B.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5, 51, 629-636.
- Dittes, J., & Kelley, H. Effects of different conditions of acceptance upon conformity to group norm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6, 53, 100-107.
- Eiser, J. R., & Stroebe, W. *Categorization and social judgment*.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Endler, N. S. Conformity as a function of different reinforcement schedu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6, 4, 175-180.
- Ettinger, R. F., Marino, C. J., Endler, N. S., Geller, S.H., & Natziuk, T. Effects of agreement and correctness on relative competence and confor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1, 19, 204-212.
- Festinger, L.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1954, 7, 117-140.
- Freedman, J. L., Sears, D. O., & Carlsmith, J. M. *Social Psychology*(3rd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78.
- Jones, E. E., & Gerard, H. B. *Foundations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7.
- Kelley, H. H., & Lamb, T. W. Certainty of judgment and resistance to social influ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7, 55, 137-139.
- Kiesler, C., Zanna, M., & De Salvo, J. Deviation and conformity: Opinion change as a function of commitment, attraction and presence of a deviat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6, 3, 458-467.
-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1962.
- Luchins, A. S., & Luchins, E. H. The role of understanding in social influences on judg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63, 61, 133-150.
- Mouton, J. S., Blake, R. R., & Olmstead, J. A.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yielding and the disclosure of personality iden-

- tity. *Journal of Personality*, 1956, 24, 339-347.
- Rosenberg, S., Nelson, C., & Vivekananthan, P. 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impre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9, 283-294.
- Schachter, S. Deviation, rejection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1, 46, 190-208.
- Sherif, M. A study of some social factors in perception. *Archives of Psychology*, 1935, No. 187.
- Thibaut, J. W., & Strickland, L. H. Psychological set and social conformity. *Journal of Personality*, 1956, 25, 115-129.
- Wrightsman, L. S. Effects of waiting with others on changes in level of fel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0, 61, 216-222.
- Zajonc, R. B.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Monograph supplement, Part 2, 1-2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Group Pressure on Favorableness Impression and Likableness Impression

Geu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test the hypothesis that favorableness impression measured by a good-bad scale would be judged according to social norms, whereas likableness impression measured by a like-dislike scale would be judged according to personal norms. In this study, the group pressure in Asch's(1951) conformity situation was manipulated as a social norm. In order to test this hypothesis, fifteen 4-word sets were constructed and their favorability and likability scale values were measured by 10 subjects. On the basis of these scale values, the group pressures were carried by three confederates on the scale values plus or minus 1 SD points on the judgment scale to 8 out of 15 word sets. Three confederates were instructed to report the remaining word set's scale values as their impression.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 4-man (3 confederates and 1 subject) group situation. To each word set, 3 confederates reported, in turn, their instructed impression value and then the subject reported his favorableness or likableness impression after he received three confederates' group pressure. Subjects were 40 college male students and divided into two groups of 20 men (the favorableness judgement group and the likableness judgement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impression response of the favorableness judgement group was more influenced by group pressure than that of the likableness judgement group, 2) the favorableness judgement group showed greater conformity than the likableness group, 3) the response variability of the favorableness group was smaller than that of likableness group, and 4) the favorableness group trusted in group pressures more than the likableness group did. Previous research on conformity reported that group pressures in conformity situations have normative influence on group members and that the group members identify this pressure as their judgemental criteria.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re interpreted as approving the hypothesis of the present study.